

제429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임시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3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추가)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 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	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	2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	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	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	3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	3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	3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	3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	3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	8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8일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와 22일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6)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40)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 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장애인·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의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 김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박지혜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고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회사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소희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준 각 소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토론은 아닐 것 같고요. 질문입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개 법률안을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제 진행한 소위 논의에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었고 그 내용 중에서 일정하게 공감을 얻어서 합의된 것도 있고 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들이 됐는데, 그중에서 5개 법률안은 통합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그중에서 기준은 어떻게 5개를 통합대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5개를 선정한 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안 심사를 통해서 계속 논의해 가겠다는, 법안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박지혜 위원님께서.....

○박지혜 위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간사들끼리 협의했다기보다는 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당이 다 합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합의된 내용들 중에, 기존 의제 다뤘던 법안들 중에 합의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은 이게 통합법안으로 포함되고 어느 것은 빠진 것이 되어서 그게 제가 조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계류된 법안이 이 주제를 가지고서 후속 논의를 통해서 과연 언제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한가요?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탄소중립기본법 자체가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사라지지는 않고요.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믿어 주시고요.

○**서왕진 위원** 우선 어제 논의에서 내용적인 합의들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경권을 포함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들이 관련 법들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통합대안을 하고 나머지 동일한 합의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다른 법안은 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결의나 논의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박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무슨 법인지 알 것 같은데…… 8조 1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8조가 장기감축경로를 담고 있는 법안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장기감축경로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어서……

○**서왕진 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박지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통과시키자는 거였고 그중에 일부, 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부분은 나머지 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키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서왕진 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합의가 안 된 것 알고 있고 합의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안들 중에, 그러면 합의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은 이 5개가 유일한가요?

○**박지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의된 것은 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합의된 게 빠졌으면 집어 넣어야지.

○**임이자 위원** 소위 안 들어가셨어요?

○**서왕진 위원** 아니, 제가 소위 들어가서 어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런데 왜, 소위 들어가셨는데……

○**위원장 위성곤** 아니, 소위 위원이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 법안 심사를 하셨는데……

○**서왕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그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시면 도대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라고……

○**조은희 위원** 왜 지금 와서, 원래 소위 위원들은 여기서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김소희 위원** 어제 의결할 때 계셨는데.

○**서왕진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의결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들은 확인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어느 어느 법들을 통합해서 대안으로 한다 그것까지 결의를 했었나요?

○**위원장 위성곤** 당연히……

○**임이자 위원** 자구 관련돼서는 소위 위원장한테 맡기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아니, 법안 심사할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을 텐데요. 수석 전문위원께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딱 그 범주에 한정지어서 논의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서왕진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 그래서 1항, 2항 이렇게 얘기한 게 법률안을 치칭하는 거기는 한데……

○**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어제 내용별로 다 합의된 사항들을 추려서 대안을 만든 것이고요.

예를 들면 법안 중에 한 10개 사항이 있는데 1개 사항만 합의된 경우, 이런 경우를 대안에 반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버리면 나머지 감축경로를 포함한 내용들은 폐기돼 버리기 때문에 일부로 놔둔 겁니다. 그런데 조항 하나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들은 전체 대안에 포함시키되 그 안은 폐기하지 않고 계속 놔둔 것입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지금 서왕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의견이에요?

○서왕진 위원 어제 합의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확인했고요. 그 부분들이 어떠어면 부분으로 합의해서 추진한다고 됐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각각의 법안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합의된 것은 계속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어떤 것은 포함시켰다 이 부분까지 구별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합의된 내용 각각의 개수를 몇 개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여기에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어떤 법안은 그냥 계속으로 했는지 그 구별의 기준을 지금 여쭤본 것이었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가 돼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 듣는 겁니다.

○조지연 위원 합의된 것만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김소희 위원 합의된 것은 내용만 올린 건데……

○임이자 위원 합의된 것만 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내버려둔 건데, 그것은 계속 심의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 그러면 법안 중에……

○李憲昇 위원 아니, 어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겁니까, 그 법안이? 그러면 그 법안을 빼고 통과시키면 되지, 통합해서.

○임이자 위원 일단 대안으로 만들……

○위원장 위성곤 서왕진 위원님 관련해서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또 전문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회의 절차로 대안 반영 폐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보좌진께 연락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 부분을, 그 확인 부분을 전달받지 못해서 확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돼서 다 협의가 되고 논의된 결정이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위성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은 없으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23분)

○위원장 위성곤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같은 건인데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의안번호 22125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2125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나 그 내용만 대안에 반영되고 형식적으로 소위에 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 예정인 대안에 포함시켜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13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위성곤 왜요? 잠깐만요, 법률안 처리와 관련된?

○이소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법률안 처리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중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 발음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발음 가지고 제가 이런 곤란을 겪기는 또 처음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러면 정부 측 인사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 양당의 위원님들 계셔서, 몇 분씩 하시기로 했지요?

○김소희 위원 의사진행은 3분입니다.

○박지혜 위원 많지 않아서 그냥……

○김소희 위원 2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위성곤 3분씩 두 분만 양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해도 되는데……

○박정현 위원 정부 측 인사를 먼저 들으셔야지요.

○위원장 위성곤 하고 나서 정부 측 인사……

○이소영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아, 먼저요?

○위원장 위성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현안질의입니까?

○이소영 위원 제가 그냥 1분만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 위성곤 1분만?

○이소영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드리면 되지요, 간사님?

○김소희 위원 예, 저는 자료제출 요건이라서……

○위원장 위성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오늘 산업부장관님 기후특위에 처음 출석해 주셨는데 아마 관세 협상 등으로 굉장히 바쁘신 일정 중에 어렵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만큼 정부 측 답변, 의견도 짧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할 수 있는 짧은 질문 정도는 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1분을 달라고 해서……

○이소영 위원 30초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3분을 드릴 테니까요 질의를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예, 지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이소영 위원 장관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기후특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방금 배출권거래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곧 4차 계획기간 할당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지만 4차 계획기간은 2030년까지 5년 간의 꽤 긴 기간이고 또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기까지 운영되는 동안 배출권거래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고장 난 제도 이런 평가를 받아 왔고요. 이제 앞으로 시작할 4차 계획기간에서 이 제도를 바로 잡고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산업부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제가 몇 번 산업특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일종의 배출권을, 탄소중립을 나가는 데 가격기능으로 시장기능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게 탄소중립을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나 서로 원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4차 배출권거래제도 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후에, 아쉽지만 우리 에너지부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은 우리가 맞이한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을 책무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루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발 앞서 나가면 이 일에서 위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될 수 있도록, 또 뒤로 미루지 않고 한발 앞서 변화하는 그런 일을 산업부장관님이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통과하는 배출권거래제법이 앞으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리 기후특위 위원님들이 탄소중립에 한 발자국을 앞서 가고 있다면 저는 한 반 발자국만 앞서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같이 동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탄소중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야 될 이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발자국 앞서가면 그 정신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장관님, 기대했던 답은 아닌데요. 어쨌든 반 발자국이라도 꼭 좀 앞서가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당 장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탄소중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면 무엇이 최종 목적지이십니까? 오늘 여기 기후특위는 탄소중립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먼저 한미 관세 관련돼서……

○**위원장 위성곤** 아니……

○**임이자 위원**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소영 위원** 아니, 기후특위에서……

○**임이자 위원** 국회의원 발언은 자유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 자유이기는 해요. 자유입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내쫓으실래요, 법사위처럼?

○**위원장 위성곤** 나가실래요?

○임이자 위원 저 못 나가요. 상식이 안 맞는 거지요.

제가 산업통상부장관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도대체 사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경북의 사과가 대한민국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그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그러고 정청래 당대표는 만점, 만점, 만점 막 이러던데 관세 관련돼서 25% 지금 계속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25%. 어저께도 자동차 부품 회사 갔다 왔어요. 다 죽을 상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만점이라면서 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맹기적거리고 있고 지금 대미 투자 관련돼 갖고도 대성공적이었으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외환보유고의 80%고 스와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등 국익에 반한다는 둥 왜 이러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아니라 사과입니다. 사과는……

○임이자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국회의원이 사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말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톤이 갑자기 좀 다른 톤이 나와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임이자 위원 애플(appl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사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상 관련해서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협상을 당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요……

○임이자 위원 아니, 장관님 잠깐만요. 지금도 계속 협상 중이고 국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맨날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고 갔다 와서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상 중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정리돼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매우 성공적이고 만점이면 지금쯤 협상해서 도장 찍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고 외환보유고 80%를 대미 투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그게 만점이고 대체 대성공적이나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장관님한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협상을 했을 당시에는 25% 관세를 막을 수 있는 그 자체로서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지금의 협상 내용은 이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측과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편으로 서로 협상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뭐가 졸려서 1분을 안 줘요? 1분만 줘요.

○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 기재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관련되어진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의 열릴 때마다 정쟁이 돼서 실제 어렵게 만든 기후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안 하면 국익에 반한 거고 못하면 무능한 거예요.

○위원장 위성곤 여당 측에서 한 분 하셨으니까요 야당 측에서 한 분만 더 하고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조은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지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우리 둘이 나눠서 할까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여당에서 1명 했는데 왜 야당에서 2명……

○조은희 위원 시작을 하셨잖아요. 우리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장관님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은희 위원님만 발언하시고요……

○조은희 위원 장관님!

○위원장 위성곤 기후위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통령께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1~2년이면 신속히 짓는데 원전은 짓는 데만 최소 15년이 걸린다’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오래 걸리니까 안 짓는다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정상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의……

○조은희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믹스는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말을 교묘히 바꾼 거라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주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에너지믹스가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기후특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원전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앞으로 여기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AI나 그리고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범위 내에서는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산자부 기능을 기후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 반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제가 반대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목적은……

○조은희 위원 중요합니다, 저희들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어떻게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부와 산업부가 협력을 해서……

○조은희 위원 반대했는데 안 먹혔다 이 말씀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는데……

○조은희 위원 기브 업(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한쪽은 원전 안 짓는다 그리고 한쪽은 원전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콩가루 집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에서의 사회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사회적인 의견 수렴은 이미 다 있습니다. 편향적인 수렴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장관님이 말씀드렸는데 안 되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건데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태도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수출은 산자부, 국내 원전은 기후부. 제대로 견디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같이 잘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질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일을 할 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의 국내와 해외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듯이 산업과 에너지에도 그런 유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은희 위원 한 부처 내에서도 칸막이 때문에 걱정인데 자기 부처 기능을 다른 부처에 뺏기면서 저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산자부 직원들이 참 믿을 만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믿을 만한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전기값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위원장 위성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 답변 들어야지요.

○이소영 위원 질의 시간 끝났잖아요.

○조은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끝났어요. 전기값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전기값은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돼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에게는 이제는 기회는 이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시간도 많은데 하시지.

○위원장 위성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당 측은 한 분만 하고 야당 측은 두 분 드리겠다고.

○조지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인사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님과 김소희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산업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존경하는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에 안정성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 적응 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정부시책을 지금보다 풍부하게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기준이 기존의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선되고 시장 안정화 예비분의 구체적 운용방식이 추가되는 등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금융시장화에 발맞추어 이에 맞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소희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이후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하실 거지요, 이제 폐회를 선언할 건데?

○조지연 위원 제가 어제 산업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심사와 관련돼서 그 내용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청만 하시고요, 자료 요청만 하시고…… 의사가 다 끝났는데 의사를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의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만약에 주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위원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위원장님, 경북경산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가 박지혜 위원장님 주재하에서 잘 열렸는데 어제 법안 심사와 별개로 저희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F-gas R&D와 관련한 진척 사항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 일체를 소위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오셨으니까, 장관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자료는 꼭 저희 국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소희 간사님, 자료 요구지요?

○김소희 위원 예. 저희가 두 차례 소위원회 진행하면서 2035년 NDC랑 무상할당비율을 논의하면서 실제로 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 이전에 특정 숫자를 법에 먼저 명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숫자만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실행 가능한 수단, 기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뒷받침이 되어야지 목표가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후특위 전체회의 때 환경부장관께서 공청회를 일일이 다 챙기고 계시더라고요—세부감축기술 목록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계획을 요청드렸고 그때 장관께서 가급적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 주셔서 제가 환경부에 적정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달라 했는데 아직도 내부검토 중이라고 자료 제출이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단을 전제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중인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공청회 내용을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A씨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고려가능한 목표로 48%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네 가지 안을 주고 있잖아요, 53%, 61%, 65%.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계획이 저는 선행되어야지만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거기에 따른 감축기술의 세부내용, 감축기술별 상용화 수준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 등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료제출을 안 주세요.

그리고 산업부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이런 기술별로, 연도별로 어떤 지원이 됐고 이

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기후특위도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야만 되고, 그래서 그전에 이런 자료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꾸 어떤 공청회 가면 윤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원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라는 걸 여기 계신 위원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예산지원계획이랑 정말 실현가능한 기술인지 현재 상용화 수준이 어떤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최종목표 설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자료제출도 동시에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위성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5 NDC목표 또 2030년까지 달성목표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구체적으로 달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하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공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자료를 모으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어떤 목표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까지 마쳤고요. 감사드립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서 그래도 우리 기후특위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매우 행복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 ○출석 위원(17인)

강득구 김소희 김용태 김원이 김종민 박정현 박지혜 서범수 서왕진 송재봉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이현승 임이자 조은희 조지연

### ○첨가 위원(3인)

김성희 김정호 차지호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임시회의록